

복식에 표현된 트랜스포메이션에 관한 연구 (제1보)

나영원[†] · 박명희

건국대학교 의상학과

Transformation expressed in Dress (Part I)

Young Won Na[†] · Myung Hee Park

Dept. of Apparel Design, Konkuk University
(2005. 8. 22.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expansion of functions of clothes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ransformation, and to forecast future trends in fashion through systematization of the aforementioned analyses.

Analysis of 20th century Modernism and Post-Modernism in a sociocultural sense confirms that transformation in clothes was formed by environmental, functional, deconstructive, and expressive factors. In this sense, the formative factors mentioned above conceptually include nomadic characteristics, usefulness, irregularity, and expressiveness.

The nomadic characteristics found in clothes transformation signify the change of clothes into environmental · nomadic everyday implements, used as tools for the body. Usefulness of clothes means that it is worn for variability, multipurpose · multi-functionality, and combined · multiple use. Irregularity means the clothes can change indefinitely, according to random manipulation on the wearer's part. Last of all, expressiveness conveys the designer's internal sensitivity and imagination onto an external object through the induction of various expressive factors.

Key words: Transformation, Nomadic characteristics, Usefulness, Irregularity, Expressiveness; 변형, 유용성, 다기능성, 부정형성, 표현성

I. 서 론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은 사회구조뿐만 아니라 가치체계마저 변화시키고 있다. 과학기술에 의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과거의 '나인 투 파이브(nine to five)'의 업무형식을 무너뜨리고 특정 시간이나 특정 지역에 제한 받지 않는 '모빌(mobile)'개념의 24시간 가변적 대응을 요구하여 사용목적이나 착용목적에 따라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multi-function)'복식의 출현

을 가져왔다.

산업사회에서는 생산성에 가치를 두어 표준화 · 정형화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 반면, 디지털사회에서는 기술의 발달로 완벽한 기능을 갖춘 제품과 다양성에 기초한 창조성 · 변화성 · 수용성을 갖춘 제품에 미적가치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적 가치의 변화는 고정관념에서 이탈 된 다양한 표현 욕구로 나타나 필요한 기능에 따라 형태를 바꿀 수 있는 복식을 선호하도록 영향을 주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지만 수많은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환경문제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사회의 경제적 시스템의 소산물이

[†]Corresponding author

E-mail: originyeowang@hanmail.net

라 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학자, 환경 전문가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복식 디자이너들도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로서 하나의 복식이 여러 가지 용도로 변형됨으로써 자원 절약과 폐기물의 감소효과를 줄 수 있는 복식을 디자인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때 복식의 미래 유형 중의 하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한 사회구조와 가치의 변화 욕구를 수용하며 환경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변형 가능한 복식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21세기 과학기술의 발달과 환경적 변화로 인해 출현된 복식의 트랜스포메이션 현상의 내적 의미를 분석하여 체계화함으로써 미래에 다가 올 패션의 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있다.

II. 트랜스포메이션의 개념

1. 일반적 개념

트랜스포메이션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변형, 변모, 변질, 변화’를 말한다. 그러나 사전적 의미로만 개념을 정리하는 것은 내재된 의미와 분야에 따라 의미의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자는 외형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외형적 측면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은 목적 변화와 함께 형태, 재질, 색채 등의 외형적 변화가 함께 일어나는 가변적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변(可變)’이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란 의미로서 건축이나 제품에서는 이러한 가변개념을 그 형태와 기능이 달라지거나 바뀐 상태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다.

기능적 측면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은 ‘다목적’, ‘다기능’, ‘다용도’, ‘겸용’ 등을 포함한다. ‘다목적(多目的)’이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 여러 가지 목적을 겸한 것이란 의미를 가진다. ‘다기능(多技能)’이란 기능이 많은 것을 의미하며 목적 중에서 기능적 목적이 강조된다. ‘다용도(多用途)’는 여러 가지 용도를 의미하며 ‘겸용(兼用)’이란 하나의 사물을 두 가지의 다른 일에 쓰는 것을 말한다.

트랜스포메이션을 ‘변형’으로 해석할 때 이효진(2000), 박지영(2003), 장대식(2001), 최원희(2000) 등은 복식과 조형예술 분야의 선행연구에 있어 ‘변형’의 의미로

‘디포메이션’을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자는 트랜스포메이션과 디포메이션의 가장 큰 차이를 물리적 힘에 의한 회복성 여부로 보고자 한다. 즉, 트랜스포메이션은 원형이 변형된 후에도 가변적 회복성을 가지고 있으나 디포메이션은 회복성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트랜스포메이션의 개념은 형태·성질·기능·구조 등의 내외적 특성에 있어서의 변화를 말하며 ‘가변’, ‘다목적’, ‘다기능’, ‘다용도’, ‘겸용’ 등의 의미를 포함한다. 그리고 기능·목적·용도를 고려한 디자이너나 작가로부터 부여받은 조작여지로서 착용자가 이성적 판단에 의해 오브제 내에서 조작을 통해 변형하는 것을 말하며 그것은 다시 물리적 힘에 의해 회복된다. 이러한 정의는 본 연구를 위한 조작적 정의라는 점을 밝힌다.

2. 복식에서의 개념

복식 분야에 있어서 트랜스포메이션의 개념의 등장은 고대부터 존재하였으나 1980년대의 리버시블 복식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란·이라크전쟁에 의한 에너지 파동으로 절약풍조(유송욱 외, 1997) 속에서 등장한 리버시블 복식들은 겉과 안 모두를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뒤집어 입었을 때 재질과 색채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주로 지퍼나 단추의 기능성을 이용하여 탈착이 가능한 리무버블(removable) 복식들이 다양하게 출현하였다. 리무버블은 ‘이동할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떼어낼 수 있는’의 뜻으로 안감을 붙이거나 떼어내서 조절이 가능한 복식을 말한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는 이러한 리무버블 복식 외에 지퍼를 이용하여 길이 변화, 네크라인(neck line)의 변화, 열고 닫음과 탈착 기능을 이용한 실루엣의 변화(우희정, 1995)를 주는 복식들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 이후에는 이와 같은 기능적인 목적에 의한 변형 뿐 아니라 착용자의 연출에 의해서 변형되는 복식들이 발표되었다. Rei Kawakubo는 복식에 착장 방식의 다양성을 허용, 무정형의 복식을 제작하여 착장자로 하여금 여미를 이용한 연출, 부자재의 조작을 통한 연출, 두르거나 걸치거나 매는 방법을 통한 연출로서 변형되는 복식을 디자인하였다. Rei Kawakubo는 착용자의 선택 능력을 강조하면서 복식에 있어서 변형을 제안하였다(Evans & Thorton, 1989).

이러한 복식을 삼성디자인넷(2003)에서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하여 ‘몇 개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디자인 된 옷’으로 정의하였으며 컨버터블(convertible)의 개념과 동일시하여 ‘두 가지로 입을 수 있는’이란 뜻으로 트랜스포머블을 정의하고 있다. Quinn(2002) 또한 그의 저서 「테크노패션(techno Fashion)」에서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변형할 수 있으며 원형으로 회복되는 복식’을 트랜스포머블로 정의하였다. Carlo Rivetti는 CP Company의 Transformable 컬렉션을 소개하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하였으며 Ex-treme Beauty에서 Hussein Chalayan은 변형되는 복식을 소개하면서 트랜스폼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Issey Miyake는 Transformer 컬렉션을 열기도 하였다.

탈착 기능을 이용하여 방한용 코트를 가벼운 레인 코트로, 소매 달린 파카(parka)가 베스트로 변형되며 조작에 의해 재킷이 배낭, 텐트 혹은 안락의자로 변형된다. 또한 이와 같이 기능의 필요에 따라 변형되는 것 이외에 착용자의 걸치거나 매는 연출방법에 의해서 다양하게 디자인이 변형되기도 한다. 이러한 복식에서의 변형은 하나의 복식이 하나의 기능만으로 착용 되었던 기존의 고정관념에 대한 탈피로 복식에 있어서의 기능의 확대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복식은 1970년대 이후 패션업계에서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복식유형으로 최근 디자이너 컬렉션에서는 그것이 주는 새로움과 특징적인 요소로 인해 출현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김민주, 2003).

복식에 있어서의 트랜스포메이션은 그것이 다양한 기능으로 변형된다 하여도 복식으로서 편안하게 착용 되도록 만들어져야 하며 기능적 측면이나 미적 표현으로서 다른 기능으로 변형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

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기능의 디자인으로 변형되어진 후 반드시 원형으로 돌아 갈 수 있어야 한다(Quinn, 2002). 즉, 복식에서의 트랜스포메이션은 일반적 개념과 전제조건을 포함하여 ‘몇 개의 목적에 적합 하도록 변형과 회복을 무상으로 반복할 수 있는 복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식에서의 트랜스포메이션의 개념을 일반적 개념과 전제조건을 포함하여 ‘몇 개의 목적에 적합 하도록 변형과 회복을 무상으로 반복할 수 있는 복식’으로 조작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개념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을 복식에서의 트랜스포메이션 개념에 포함하며 이외의 것은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표면의 재구성성을 통한 디자인 요소가 변형되는 유형이다. 양면으로 입을 수 있는 소재나 기법을 사용한 리버시블, 한 가지 복식 내에서 분리·조합되는 탈착개념의 디테처블과 착장자의 연출(두르기, 걸치기, 매기, 부자재를 통한 디테일을 조정)에 의해 디자인을 변형하는 것이 이에 포함된다.

두 번째는 복식 기능이 소품 기능으로 변형되는 유형이다. 이러한 복식은 디자이너의 창조적인 아이디어, 혁신적인 부자재와 기술의 뒷받침으로서 만들어진다. 머프(muff)가 펼쳐지면 재킷으로 변화되거나 핸드백을 열면 케이프로 변형되는 복식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세 번째는 복식에서의 트랜스포메이션이 기능의 극대화를 통하여 환경으로 변형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의 복식들은 공기주입이나 조작을 통해 환경으로서 가구, 텐트 그리고 매트리스 등으로 변형된다.

네 번째는 모듈 시스템(module system) 즉 조립방

Table 1. 복식에서의 트랜스포메이션 개념의 조작적 범주

트랜스포메이션의 개념의 조작적 범주	
정 의	몇 개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변형과 회복을 무상으로 반복할 수 있는 복식
일반적 개념	가변 · 다목적 · 다기능 · 다용도 · 겸용 등의 의미 포함
전제조건	복식으로서의 정확한 구조와 편안한 착용감.
	다른 기능으로 변형 될 수 있는 구조 원형으로의 회복 가능
유 형	표면 재구성성을 통한 디자인 요소가 변형되는 유형
	복식이 소품으로 변형되는 유형
	복식이 환경으로 변형되는 유형 모듈 시스템을 통하여 다양한 디자인으로 바꿀 수 있는 유형

식을 통하여 다양한 디자인으로 바꿀 수는 유형이다. 모듈 시스템의 각 조각들은 레고와 같은 조립방식에 무수히 많은 디자인으로 변형·조정된다.

따라서 복식에서의 트랜스포메이션의 개념을 '몇 개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변형과 회복을 무상으로 반복할 수 있는 복식'이라는 의미를 포함하여 <Table 1>과 같이 그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3. 20세기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본 형성요인

복식은 사회 구조 및 이데올로기의 표현매체로 인간정신을 반영하는 생활문화이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박선영, 남윤자, 2003).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20세기 사회문화 현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담론을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살펴봄으로써 트랜스포메이션의 형성요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1) 환경적 요인

1960년대를 전후로 시작된 정보기술 혁신과 대중매체의 확산으로 인한 국가간의 경제소멸, 환경보호운동, 매체 산업의 발전 등으로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에 적합한 모형(박숙현, 이순덕, 2001)인 모더니즘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후기 산업사회의 전자문명에 부합하려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시작(전성주, 2002)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발생과 기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은 바로 정보매체의 발달이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TV나 컴퓨터가 없었더라면 아마 탄생될 수 없었다고 할 만큼 고도로 발달된 과학, 기술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김옥동, 1992). Telsa는 포스트모던 경향이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다고 예견했다(김현수, 양숙희, 1999). 이러한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도구의 영역을 넘어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정보를 입수, 발전할 수 있는 '모빌'환경을 만들어 인간의 생활방식은 과거의 유목생활 같이 특정 시간이나 특정 지역에 제약 받지 않고 어디든지 다니며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도시적인 유목생활을 조성하는 모빌환경은 이미 웨어러블 컴퓨터(wearable computer)와 기능에 따라 변형되는 복식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갈수록 심화되는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문제, 산성비, 해양오염 등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지

구 환경문제(한국전자통신연구소, 1996)는 인간을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변형이 가능한 복식을 출현 시켰다. 하나의 복식이 여러 가지 용도로 변형되는 것은 자원절약 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감소효과를 가져와 결과적으로는 환경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방법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 기능적 요인

기능 최우선의 모더니즘의 입장은 포스트모더니즘에 들어서면서 과학과 기술에 대한 신뢰의 상실(Jameson, Fredrick, 1991)로 무너진 듯 보이나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영향, 장식을 거부하는 미니멀리즘 경향, 라이프스타일과 고정관념의 변화, 다원적 상징(하지수, 2001) 등으로 오히려 더 세분화되어 기능의 극대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요즘은 제 2의 산업 혁명기라고 일컬을 정도로 모든 분야가 변화되고 있다. 즉, 오토메이션 시스템, 컴퓨터, 인공두뇌 등에 의해 생활은 편리해지며 사람들은 버튼 하나로 잠자리가 되기도 하고 휴식공간이 되기도 하며 일터가 되기도 하는 시스템을 원한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다기능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확산됨에 따라 의류 분야에 있어서도 다기능성의 제품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품목이 다른 복식으로 변형되는 복식, 제품으로 변형되는 복식, 컴퓨터 기능과 커뮤니케이션 기능으로 변형되는 복식 등 다기능의 복식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

3) 해체적 요인

포스트모더니즘은 확고한 고정범주에 머무는 것이 아닌 극도의 탄력적 속성(박숙현, 2001)을 지니고 있으며 논의되는 모든 의제들은 서양문화 내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문화의 정당성을 위한 신념들에 대해 다분히 해체적이다(전성주, 2002).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에 있어 해체주의는 Jacques Derrida의 해체주의 선언 이후 등장(Megill, Allan, 1985)하였다.

Derrida가 말한 바와 같이 세계는 무한의 해체적 불확정성으로 계층간의 위계와 경계가 무너지고 수평적 관계의 사회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문화의 영역에서도 절대적인 미와 진리대신 다양성과 가변성이 수용되며 영역의 독자성을 수호하기보다 상호 침투하는 현상이 발견되는 등 정치, 경제, 과학, 문화, 예술의 전 영역에서 해체적인 불확정성이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위 상징적 상호론자(Symbolic Inter-actionist)들은 패션의 상징적 의미를 성(sex), 성별(sexuality), 연령(age), 계급(status) 등과 관련된 불확정성을 통해 설명한다. 문화적 범주의 확정성을 패션과 연관지어 언급한 Fred Davis에 의하면 수세기 동안에 걸쳐 존속 되어 온 인간 정체성에 의하면 불확정성이 패션변화를 자극하여 새로운 영감과 전략을 제공한다고 한다(이정후, 양숙희, 1999).

4) 표현적 요인

모더니즘은 예술의 세속화와 저속한 상업주의에 대한 비판적 반작용으로 생겨난 양식으로 이 시기의 고급문화를 지향하는 지배계층은 대중 통치의 한 방편으로 개인적 열정, 정서, 감정 등을 지성, 이성 그리

고 보편적 질서 속에 종속시켰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시대에 오면서 독점성, 확일성을 벗어나 자유주의에 기초한 선택과 판단의 개방성을 보이며 궁극적으로 중심적 지배개념이 가져오는 예측을 거부하고 인간의 해방을 실현함으로써 인간성을 옹호하려는 의지를 함유(전성주, 2002)하여 개개인의 인격이 존중되고 인간의 존재가 중요시 되었다(김민수, 1994).

더욱이 20세기 후반기 포스트모던 상황에서는 디자이너의 개인의 표현의지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중문화의 확산과 기계기술 주의로 패션의식은 개개인에게 파급되어 패션에서의 민주화를 성취하고 있다. 개인주의의 급격한 성장과 자유의 구가는 인간의 어떤 사고와 생활영역에서 보다 패션의 영역에서 무한한 표현력을 키우게 된다. ‘자유 표현의 장’으로서 역할을 맡으면서 패션은 개인의 자유로운 상상력

Table 2. 20세기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본 형성요인

요 인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환경적 요인	· 확일적, 고정적 제어 환경	· 뉴미디어 테크놀로지 정보기술에 의한 상호작용성과 탈중심화 ·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의한 유목적 모빌 환경
기능적 요인	· 대량생산, 조립공법 기술 활용을 통한 기능 최우선의 입장 · 기능이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가치	· 모더니즘의 해결방식인 기능주의 측면을 극대화시킴 · 현대 과학기술을 극대화하여 표현하고 과장하여 기능성을 외부에 노출 · 목적성에 따른 편리성, 적합성을 통한 다기능성의 가치
해체적 요인		· 철학적 중심주의의 해체 · 고정관념의 해체 · 정치, 경제, 과학, 문화, 예술 각 영역간의 해체적 불확정성 표출
표현적 요인	· 개인적 정서, 감정 등을 지성, 이성 및 보편적 질서에 종속 · 고급문화의 엘리트계층의 지배	· 표현의 확일성 탈피 · 대중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자유표현의 장 · 패션의 민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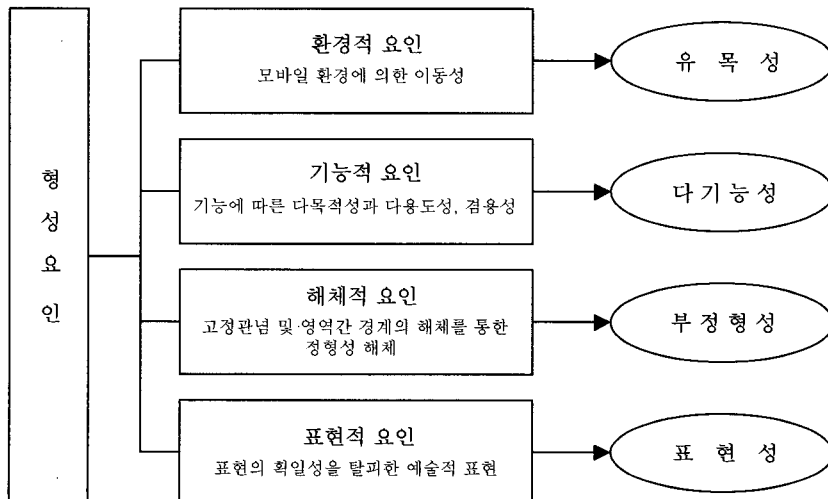


Fig. 1. 트랜스포메이션의 특성 도출 경로

과 취미를 요구하게 된다. 요컨대, 포스트모더니즘시대에 있어 패션이란 열린 개념으로서 모든 이가 그네들의 미적 입장을 구체화 할 수 있으며 ‘삶을 위한 과시’에 대한 매우 적절한 매커니즘인 것이다(김민자, 1998).

이상과 같이 형성요인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살펴 보았다. <Table 2>에서와 같이 트랜스포메이션은 환경적 요인·기능적 요인·해체적 요인·표현적 요인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은 형성시점과 진행과정상 그 내용에는 차이는 있으나 지속발전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모더니즘시기에 해체적 경향이 없는 것은 그것이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의 현상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트랜스포메이션의 형성요인은 각각 유목적성·다기능성·부정형성·표현성을 특성으로 한다. 이는 본 연구가 미래 복식의 방향에 대한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시점으로 볼 때 가장 최근의 경향에서 보이는 보편적 특성을 대표성으로 보고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복식에서의 트랜스포메이션의 의미의 내용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III. 복식에 표현된 트랜스포메이션의 의미 분석

본 장에서는 형성요인에 의해 도출된 유목적성·다기능성·부정형성·표현성을 통하여 복식에서의 트랜스포메이션의 내적 의미를 고찰 하고자 한다. 분석에 있어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네 가지 특성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대별한다.

유목적성과 유용성의 구분은 유목적 경향 반영의 유무로서 구별하여 유목적인 기능을 위한 변형을 유목적성, 이를 제외한 다기능·다목적·다용도·겸용에 의한 변형은 유용성으로 보고자하며 부정형성·표현성의 구분은 복식 자체의 착장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 연출에 의해 변형되는 경우는 부정형성으로, 작가의 표현적 의도로서 착장법을 넘어선 방법으로 변형되는 경우를 표현성으로 보고자 한다.

1. 유목적성

Lucy Orta는 복식을 유목생활의 추위와 폭풍에 맞서 보호할 수 있는 임시적인 피신처로 생각하고 그의 작

품인 Refuge wear를 도시의 비상상황과 자연 재앙에 대비하여 즉각적인 필요에 따라 변형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Fig. 2). Lucy Orta로부터 영향을 받은 Kosuke Tsumura는 그의 Final Home 컬렉션에서 멀티포켓 파카(multi-pocket parka)를 입고 다니는 환경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고안하였다. Tsumura는 복식을 최소 거주단위로 간주하여 복식이 집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CP Company도 Orta로부터 영향을 받아 건축구조의 복식을 개발하였다. 긴 후드가 달린 러버코팅(rubber coating) 소재의 케이프는 바람과 비를 막을 수 있으며 알루미늄 막대로 지지하면 텐트의 형태가 된다.

이외에도 Samsonite는 공기로 부풀리면 쿠션이 되는 칼라가 부착된 재킷을 디자인하였으며 Naoki Takizawa는 유목생활 시 보호기능으로서의 높은 칼라와 모자가 달린 의상을 디자인했다. 이 디자인은 셔츠, 스웨터, 재킷과 같은 아이템 위에 분리 착용 되도록 되어있다.

이상과 같이 복식에 있어서의 트랜스포메이션의 유목적 의미는 복식이 유목생활 중에 만나는 위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기능으로서 건축물이 되거나 제품으로 변형되는 것을 말한다. 복식이 인간의 몸을 위한 건축으로서의 거주지와 임시적인 피신처가 되기 위한 자격이 있다고 한 Lucy Orta의 말처럼 복식의 유목적 특성은 도시화에 따른 생활공간의 이동현상에 대한 하나의 최소단위로서 인간에게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는 사회적 기능으로 미래에 더욱 증가하게 될 현상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2. 다기능성

복식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은 도구적 기능으로서의 다기능성을 갖는다. 이것은 복식이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기능을 변경해나가며 사용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Patrick Cox는 Pieces 컬렉션에서 지퍼와 스테드(stud)를 이용하여 비옷은 칼라와 모자를 떼어내어 바이크자켓(bike jacket)으로 변형되며 소매를 떼어냄으로써 조끼가 되고 긴바지가 반바지로 변형되는 조립방식의 다기능적인 옷을 디자인하였다. John Ribbe는 T.P.O에 따라 변형 가능한 디자인을 다수 발표했는데 Mummy dress는 용도에 따라 긴 스커트, 짧은 스커트, 셔츠와 부스피에의 네 스타일로 입혀질 수 있다(Fig. 3).

이와 같이 복식에서의 트랜스포메이션은 용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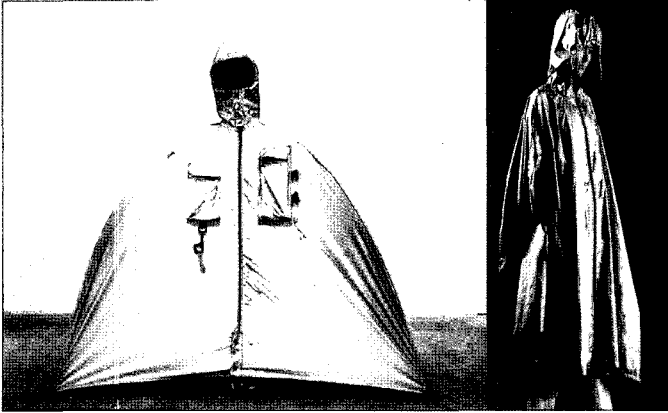


Fig. 2. Orta, Lucy. 1992. *The Supermodern Wardrobe*, p.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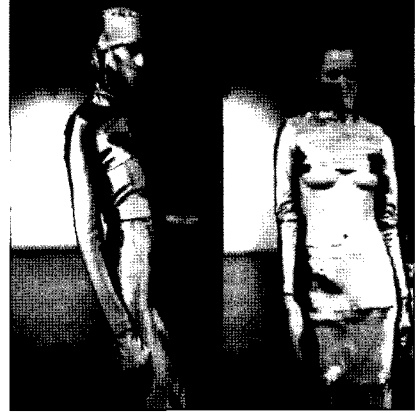


Fig. 3. Ribbe, John. 1999. <http://www.johnribbe.com>

따라 복식의 범위 안에서 변형되기도 하지만 가방이나 도구로 변형되기도 한다. CP Company는 베스트가 가방으로 변형되는 스타일을 발표하였다.

이상과 같이 복식에 있어서 트랜스포메이션은 복식의 다기능적 역할 즉, 복식이 몸의 도구 및 장치로서 여러 용도에 활용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복식이 가지고 있는 선택사양을 입는 사람이 목적에 따라 변형할 수 있어 개인들의 사회적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가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탁월한 기능성을 착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복식에서의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 다기능성은 기술적인 부자재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 지퍼를 포함한 스냅, 드로스트링, 벨크로 테이프 등 이러한 것들이 트랜스포메이션의 도구로 사용되어 기능성을 높이고 여러 가지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가치 있는 복식을 만든다. 그러므로 미래에는 기술의 발달에 의한 각종 부자재로 보다 더 첨단화된 다기능성이 복식에서 등장하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3. 부정형성

해체적 형성요인을 배경으로 하는 부정형성은 착용자의 방식대로 복식이 자유롭게 완결됨으로써 형식이나 형태의 비정형적 변형을 의미한다. 즉, 일종의 무형식의 표현기법으로 착용자에 따라 착장방법을 달리하는 불확정적 형태 혹은 열린 형태로(김은실, 배수정, 2000) 특별한 형태나 형식을 미리 규정하지 않고 착용자에 의해 우연히 완성된다. Issey Miyake는 매기, 두



Fig. 4. Berardi, Antonio. 1999. <http://www.firstview.com>

르기, 걸치기, 감기기법(조말희, 1997)으로 이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부정형적 개념은 매기, 두르기, 걸치기의 방법 외에도 단추, 지퍼, 드로스트링, 버클(Buckle) 등의 디테일의 자유로운 조작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World는 단추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여밈 위치로 단추를 채우면 일반적인 스커트의 형태가 되나 주름이 잡히도록 빚겨가며 단추를 채우면 불규칙하게 변형되는 스커트를 발표하였다. Antonio Berardi는 펜츠에 지퍼를 달아 지퍼의 개폐에 따라 변형되는 스타일을 선보였으며(Fig. 4) Hussein Chalayan은 셔츠와 스커트에 버클장식을 부착하여 길이와 형태를 자유

롭게 변화시키는 스타일을 발표하였다.

부정형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은 하나의 복식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져 해체·재조립함으로써 변형되는 것이다. John Ribbe는 Half shirts에서 정상적인 셔츠의 형태를 해체하여 단추와 스냅으로 재조립하여 반쪽 셔츠가 되기도 하고 양쪽 모양이 비대칭의 불균형적인 여러 가지 변형들을 만들었다.

이상과 같이 복식에 있어서 트랜스포메이션은 해체적 부정형성의 의미를 지닌다. 무형식으로서의 복식의 트랜스포메이션은 착용자의 감성에 따라 자유자재로 완결함으로써 다양하게 변형된다. 이는 선택사양에 따라 기능의 교체를 통하여 변형되는 복식들은 필요 용도에 따라 계획 하에 만들어짐으로써 변형에 한계성을 가지지만 연출에 의해 변형을 추구하는 복식은 비제한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한의 방법으로 연출이 가능하다.

4. 표현성

복식은 인간의 내적 이미지의 세계를 표출하는 예술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다(금기숙, 1996). 또한 복식의 표현적 수단 기능은 외적 형태를 빌어 예술가의 내적 목적인 감정 내지는 상상을 표출하고자 하는 예술의 심미적 표현기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민자, 1989). 본 연구에서는 표현성을 작가나 디자이너가 의도적으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예술적 기법을 통하여 표현한 부분만을 다루고자 한다.

Jean Paul Gautier는 작품의 중앙에 고전회화를 사실적으로 표현, 이것에 열고 닫는 입체적 창과 같은 것을 만들어 줌으로써 그것의 개폐에 따라 변형을 연출하고 작품의 가치와 신비감을 표현하였다. Chalayan의 Dress with bustle은 드레스의 뒷부분을 열면 확장된 버슬 형태로 변형된다. Issey Miyake의 날아다니는 접시는 완전한 접시와 같이 평면의 구조에서 착용하게 되면 주름으로 인해 입체적 조형의 구조로서 변형된다. 이외에 공기에 의한 부풀림을 통하여 변형되는 작품들도 있는데 Michko Koshino는 City Sports라는 작품을 통하여 납작한 평면의 형태에 공기를 주입함으로 변형되어 완벽한 스커트의 실루엣을 표현하고 있다(Fig. 5).

위와 같이 복식에서의 트랜스포메이션의 표현성은 구체적인 오브제를 부분적으로 표현하고 있거나 특정 형상의 이미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나타



Fig. 5. Koshino, Michko. 1996. Techno Textiles, p.121.

나고 있다. 표현방법으로 공업용 재료의 사용이나 전기, 디지털 등의 기술의 적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볼 때 다소 인위적인 부자연스러움이나 완벽성의 부족 등 미비된 모습으로 보는 관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시발점이 되어 미래에는 안정되고 정교한 예술적 표현기능을 갖춘 변형 가능한 복식이 출현되리라 기대된다.

I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21세기 과학기술의 발달과 환경적 변화로 인해 출현된 트랜스포메이션 현상을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형성요인을 분석하여 복식에서의 트랜스포메이션의 의미를 고찰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은 복식에서의 트랜스포메이션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하여 일반적 개념과 복식에 나타난 트랜스포메이션의 개념을 분석하여 범주화하였으며 20세기의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트랜스포메이션의 형성요인을 도출하고 복식에서의 트랜스포메이션의 내적 의미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식에 있어서의 트랜스포메이션은 변형과 회복을 무상으로 반복할 수 있는 변형 가능한 복식으로 정의되었다.

둘째, 복식에 있어서의 트랜스포메이션의 내적 의미는 유목성·다기능성·부정형성·표현성을 특성으로 하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목적성은 복식이 이동성과 보호성을 수반하는 하나의 환경적 공간으로 변형되어 유목적 사회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그 특징으로 한다.

2. 다기능성은 복식이 몸의 도구 및 장치로서 활용되며 선택사양에 의해 입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 변형하여 입을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다기능성은 기술적으로 개발된 부자재들로 인하여 편리하고 실용적이며 첨단화 된 구조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3. 부정형성은 하나의 복식이 해체됨으로써 무정형의 복식으로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 부정형은 디자이너가 착장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미확정적 디자인을 제시하여 이를 착용하는 착용자가 자유롭게 연출하여 변형할 수 있다.

4. 표현성은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하여 디자이너나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성이나 상상이 표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논의 된 트랜스포메이션의 내적 의미는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복식을 도구적 기능과 표현적 기능으로 볼 때 복식에서의 트랜스포메이션은 목적에 따라 기능이 변형되어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며 기술의 발달로 인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도구적기능과 착용자가 자신의 감성과 감각대로 해체하고 표현하는 대상이 됨으로써 현대인들의 표현적 요구에 적합한 표현적 기능을 갖춘 미래의 복식 유형의 하나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금기숙. (1996). 의상디자인 발상 및 전개 방법에 대한 연구. *복식*, 29(8), 53.
 김민수. (1994). *모던디자인 비평*. 서울: 안그라픽스.
 김민자. (1998).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II). *복식*, 38(5), 380-391.
 김민자. (1989). 예술로서의 의상디자인. *가정학회지*, 27(2), 4.
 김민주. (2003). *현대 패션에 나타난 다변화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옥동. (1992). *포스트모더니즘 이론*. 서울: 민음사.
 김은실, 배수정. (2000). 장 폴 고틀리에의 작품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의 고찰. *생활과학연구*, 10(1), 64.
 김현수, 양숙희. (1999). 사이버펄크의 미의식. *복식문화연구*, 7(5), 780.
 박선영, 남윤자. (2003). 포스트모더니즘 복식 칼라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경향. *한국의류산업학회지*, 5(3), 227.
 박숙현. (2001). 시대정신과 복식조형성과의 상관성(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5(4), 675.
 박숙현, 이순덕. (2001). 시대정신과 복식 조형성과의 상관성(제2보). *한국의류학회지*, 25(5), 884.
 박지영. (2003). *지퍼를 이용한 확대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옛센스 영한사전. (2002). 서울: 민중서림.
 우희정. (1995). 지퍼를 이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유송옥, 이은영, 황선진. (1997). *복식문화*. 서울: 교문사.
 윤난지. (1993). *80년대 이후 세계미술과 다원주의*. 서울: 월간미술세계.
 이정후, 양숙희. (1999).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 *복식*, 45(7), 182.
 이효진. (2000). 세기말 서양복식에 표현된 Deformation에 관한 연구. *복식*, 50(3), 13-30.
 장대식. (2001). *이미지 변형을 통한 역설적 표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전성주. (2002). *포스트모더니즘 미학과 그 예술현상에 관한 연구*. 대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말희. (1997). *현대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연희. (2000). *형태와 색채의 변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하지수. (2001). *20세기 기능주의 패션디자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한국전자통신연구소. (1996). *그린시대의 정보통신*.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소.
 2000년 Fall/Winter 40 Collection (2000, 4). *Vogue Korea*, p. 14.
 Bolton, A. (2002). *The supermodern wardrobe*. London: V & A. Publishment.
 Braddock, E. S., & O'Mahony, M. (2001). *Techno textiles*. London: Thames & Hudson.
 Davis, F. (1992). *Fashion, culture & identity*.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Evans, C., & Thorton, M. (1989). *Woman & fashion*. London: WIPOFO.
 Jameson, F. (1991).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Durham: Duke University.
 Megill, A. (1985). *Prophets of extrem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oster, M. (1995). *The second media age*. Cambridge. UN: Polity Press.
 Quinn, B. (2002). *Techno fashion*. Oxford: Berg.
 Transformation. (2000, 1. 1). *삼성디자인넷*. 자료검색일 2003, 9. 15, 자료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http://www.firstview.com>
<http://www.johnribbe.com>